

마음과 마음을 잇는 우리글 국립국어원이 지켜 가겠습니다.

한힌샘 주시경의 한생 보따리 속 한글 사랑

민족을 사랑한 지식인 실천적 지식인 주시경 선생의 업적

주시경의 업적과 한계 어릿광대의 꿈, 주시경의 표기 이론과 『국어문법』의 의미

주시경의 유산 주시경의 유산

주시경 어록 남긴 말씀으로 보는 주시경의 뜻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 2020. 10.

쉽게 읽는 문법 용어 문법 범주(5)

실전 띄어쓰기 큰집으로 김장하러 가는 날-‘큰’, ‘작은’ 띄어쓰기

국어원 소식 대패삼겹살? 삼겹살이 대패(大敗)했다고?

우리말 다듬기 어려운 외래어,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말, 그리고 사람 우리말 지키는 국어교육 전문가

국어정책 통계 우리말, 바르게 발음하고 있나요?



목차

심표, 마침표. | 2020. 10.

한글날 특별 호

- | | | |
|----|-------------|---------------------------------|
| 2 | 한힌샘 주시경의 한생 | 보따리 속 한글 사랑 |
| 6 | 민족을 사랑한 지식인 | 실천적 지식인 주시경 선생의 업적 |
| 10 | 주시경의 업적과 한계 | 주시경의 표기 이론과 『국어문법』의 의미 |
| 14 | 주시경의 유산 | 주시경의 유산 |
| 20 | 주시경 어록 | 남긴 말씀으로 보는 주시경의 뜻 |
| 22 | 한글날 기념사 | 마음과 마음을 잇는 우리글 국립국어원이 지켜 가겠습니다. |

국어 배우기

- | | | |
|----|-------------|-------------------------------|
| 24 | 쉽게 읽는 문법 용어 | 문법 범주(5) |
| 28 | 실전 띄어쓰기 | 큰집으로 김장하러 가는 날-‘큰’, ‘작은’ 띄어쓰기 |

국어 알리기

- | | | |
|----|---------|--------------------------|
| 30 | 국어원 소식 | 대패삼겹살? 삼겹살이 대패(大敗)했다고? |
| 36 | 국어정책 통계 | 우리말, 바르게 발음하고 있나요? |
| 40 | 우리말 다듬기 | 어려운 외래어,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

국어로 바라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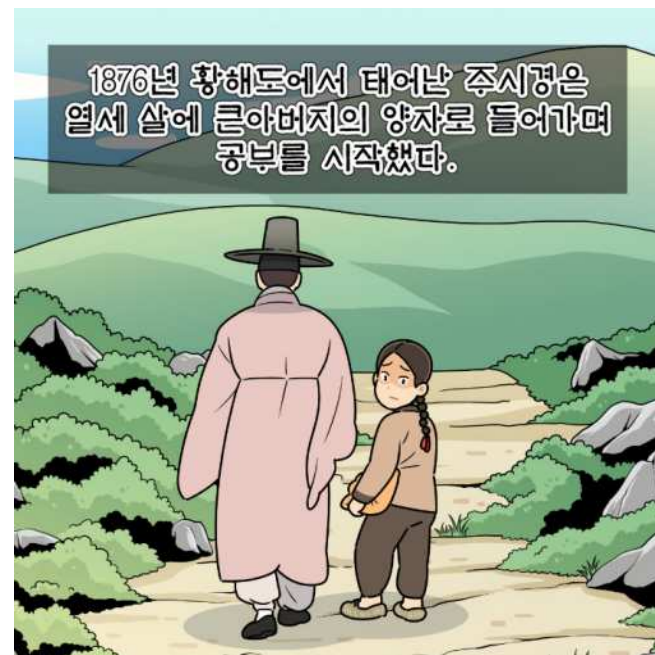
- | | | |
|----|------------|------------------|
| 42 | 우리말 그리고 사람 | 우리말 지키는 국어교육 전문가 |
|----|------------|------------------|

국어로 함께하기

- | | | |
|----|----------------|--------------------|
| 48 | 한글날 맞이 삼행시 백일장 | 574돌 한글날 맞이 삼행시 짓기 |
| 50 | | 삼행시 짓기 당첨자 발표 |
| 52 | 우리말 풀기 | 독자 참여 행사 |



보따리 속 한글 사랑





주시경은 《독립신문》의 순 한글판 교정을 보았다. 덕분에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신문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독립신문》을 제작하며 맞춤법을 정리·통일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독립신문사 내 철자법 연구모임인 '독문동식회'를 조직했다.



주시경의 노력은 한글 연구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독립협회가 조직된 후 적극적으로 동참해 활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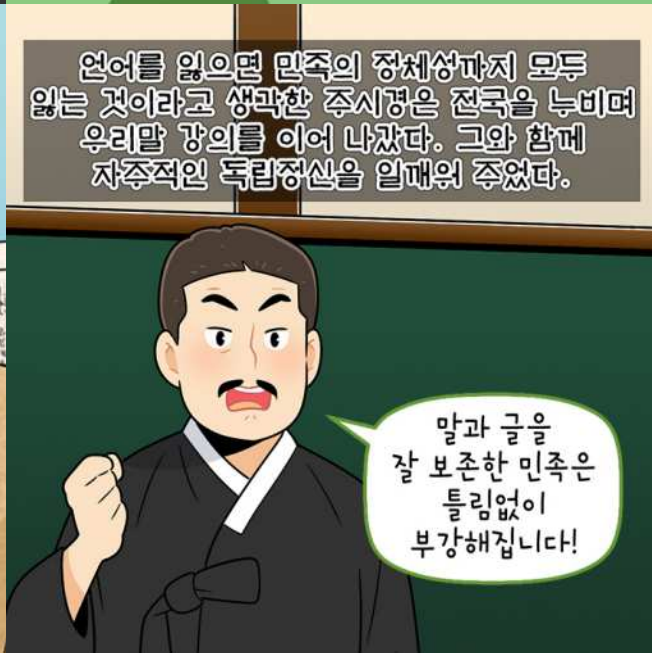
그러나 1989년 독립협회는 강제로 해산되고 지도자들이 체포되는 고초를 겪었다. 주시경 역시 향리로 피신해 은신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 아직 나에게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



을사늑약 체결 이후, 식민지가 된 슬픔에도 주시경은 한글 연구의 끈을 놓지 않았고 《말의 소리》와 《국어문법》을 완성했다.

우리가 빼앗긴 것은 꺾데기일 뿐이다!



언어를 잃으면 민족의 정체성까지 모두 잃는 것이라고 생각한 주시경은 전국을 누비며 우리말 강의를 이어 나갔다. 그와 함께 자주적인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었다.

말과 글을 잘 보존한 민족은 틀림없이 부강해집니다!



사람들은 큰 보파리에 책을 가득 넣어 분주하게 강의를 다니던 그에게 '주보파리'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후다다다닥!!

주보파리 선생님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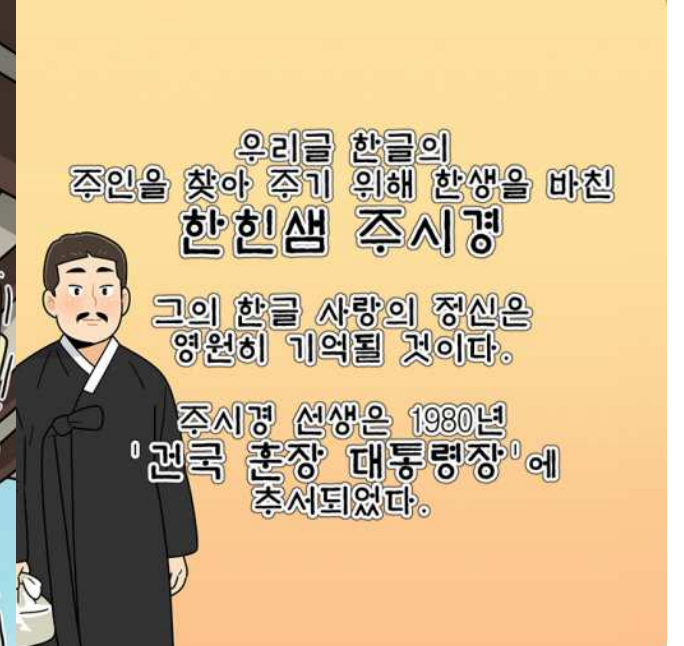
하지만 야속하게도 하늘은 그에게 많은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으음...



그의 나이 39세, 너무도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스승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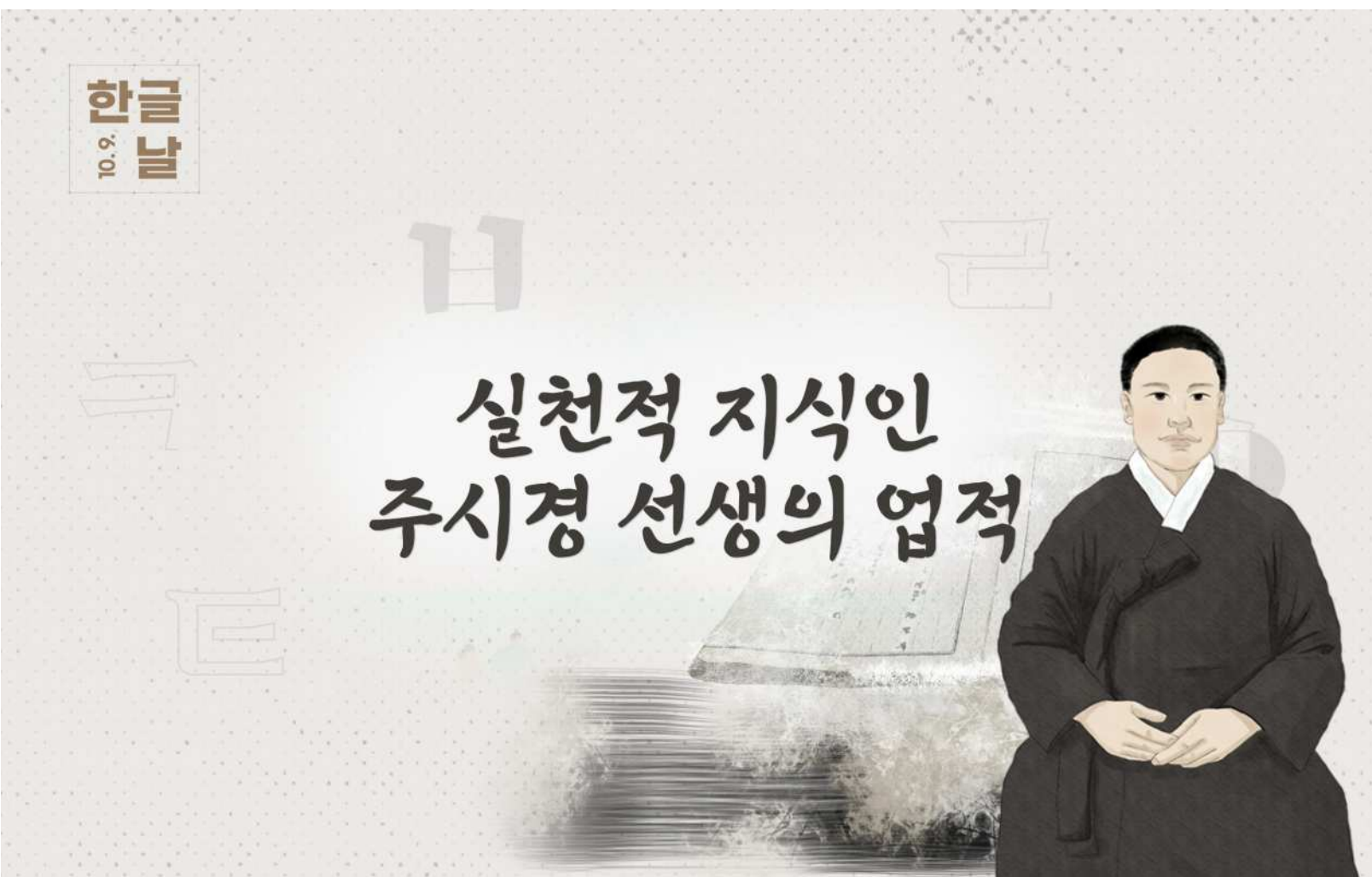


우리글 한글의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한생을 바친 **한민심 주시경**

그의 한글 사랑의 정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주시경 선생은 1980년 '건국 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되었다.

실천적 지식인 주시경 선생의 업적



글. 김삼웅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세종이 1443년 12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하고 많은 책을 훈민정음으로 펴냈다. 특히 의서·농서 등 백성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책과 어린이와 여성들을 위한 교훈서 등이 많았다. 예나 지금이나 일반 백성·국민을 위하고자 하는 정책에는 기득권 세력의 거센 도전이 따른다. 당시 최만리 등 조정의 중신들과 각지의 유생들이 드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어와 다른 문자를 만드는 것은 사대의 예에 어긋나며, 중국과 다른 문자를 쓰는 나라는 오랑캐들뿐’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군왕이 1446년 훈민정음을 반포하였지만 지배층에서는 19세기까지 훈민정음을 언문(諺文)이라 비하하고, 어린이와 부녀자들의 글로 치부하였다. 말(언어)은 한국어로 하면서 글(씨)은 한문으로 쓰는 실정이었다. 양반 지배층은 여전히 한문(한자)을 자신들의 ‘모국어’로 상용하면서 글이 백성들과 공유되는 것을 저지하였다.

훈민정음(한글)을 향한 가해자들이 많았지만 이를 지키고 연구하고 다듬어 온 분들도 적지 않았다. 문자 창제 초기부터 수백 년 동안 언문으로 천시되어 온 훈민정음을 ‘한글’로 이름 짓고 짧은 생애를 한글 보급과 맞춤법의 과학적 연구에 바친 한힌샘 주시경(1876~1914) 선생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주시경학보(사진 제공: 김삼웅)

주시경의 어릴 적 이름은 주상호(周相鎬)였는데 나중에 시경(時經)이라 고치고 아호를 한힌샘(白泉)이라 지었다. 시경이란 때때로 경전을 읽는다는, 즉, 글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한힌샘은 결코 마르지 않는 깨끗한 샘물을 의미한다. 어릴 때부터 성격이 너무 어질어서 울지도 않고 보채지도 않아 안순(安順)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주시경이 열세 살(1883년) 되던 해 봄에 서울에서 큰아버지 학만(鶴萬) 씨가 시골 댁에 와서 형제분이 의논하였고, 그 결과 주시경을 양자로 정하여 서울로 데리고 올라오게 되었다. 열아홉 살이 되던 1894년 9월에 주시경은 머리를 깎고 서울 정동에 있는 배재학당에 들어갔다. ‘몸과 머리털이나 살은 부모가 나에게 주신 것이므로 이것을 다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던 당시, 단발은 용기가 아닐 수 없다.

주시경은 언제부터 한글에 그토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졌을까. 그는 왜 시대 조류와는 다른 길을 걸었을까, 그리고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열일곱 살(고종 29, 서기 1892년) 되던 때였다. 서당에서 이 진사에게 한문을 배울 때 이 진사가 한문의 뜻을 해석하려면 반드시 우리말로 번역함을 보고 주시경은 속으로 “글은 말을 적으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떠오르게 되었다. 이것이 한글 연구에 일생을 바치게 한 동기였다. “말을 적는 방법 곧 부호(符號)가 한문같이 거북하고 어려워야 어느 겨를에 학문을 얻어 가질 수 있겠느냐? 만일 한글로 우리말을 적는다면(한문으로 적지 말고) 사반공배(事半功倍)*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말과 글을 더 닦고 같지 않으면 안 될 상태다. 이리하여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선생이 새 교육에 뜻을 두고 배재학당에 들어감도 이 때문이었다.”

-김윤경, 「주시경 선생 전기」, 『한글』 126(1960)

* 사반공배: 들인 노력은 적고 얻은 성과는 큼

주시경은 배재학당에서 박세양·정인덕 강사에게 서양식 교육으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수학·영어·시사·내외지리(內外地理)·역사 등의 신학문을 배웠다. 학구열이 남달랐던 주시경은 부족한 학비를 벌기 위해 배재학당 인쇄소에서 잡역을 하면서 여가를 이용하여 남대문로 상동의 작은 초가에서 한글 연구에 열중하였다.

그는 중추원 고문관 겸 『독립신문』사장이었던 서재필에게 만국지지를 배우면서 그와 인연을 맺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주시경은 배재학당 보통과에서 당대의 개화파 거물 서재필과 만나고, 훗날 독립협회와 『독립신문』발간에 참여하면서 한글 연구라는 운명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주시경은 서재필의 권유를 따라 회계 겸 교보원(오늘의 교정원)으로 『독립신문』사에 입사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간신문인 『독립신문』 창간호가 1896년 4월 7일에 발행되었다. 비록 4쪽짜리 초라한 지면이었으나 그 의미와 방향은 적지 않았다. 여기에 실린 ‘창간사’는 일개 신문의 고고지성을 뛰어넘어 조선 사회에 큰 울림으로 메아리쳤다. 그리고 이 신문이 순 한글로 낼 수 있었던 것은 주시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독립신문』이 창간되고 7월에 독립협회가 설립되었으며, 1898년 3월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었다. 2년여 동안은 개화의 전성기였으며 한글 운동을 중심으로 가히 르네상스라 할 만했다. 주시경은 고작 20대 초반 학생 신분으로 『독립신문』과 독립협회에서 개화파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열정적으로 일했다.

그런데 서재필이 쫓기다시피 미국으로 떠나면서 주시경은 윤치호와 함께 『독립신문』을 함께 맡아 운영하였다. 고종이 적대시하고, 열강의 이권 탈취를 매섭게 비판해 온 까닭에 러시아·청국·일본 등 외세가 사갈시하는 『독립신문』의 운영은 쉽지 않았다.

여기에 관변단체로 세력을 키워 온 황국협회와 보부상 무리의 『독립신문』과 만민공동회 간부들을 향한 테러와 협박이 잦아졌다. 주시경에게는 혹독한 시련기였다. 주시경이 배재학당 재학 중 수행한 또 다른 큰 역할은 협성회와 『협성회보』발간에 찬술원(편집위원)으로 참여한 일이다. 서재필의 지도로 이승만·전덕기 등과 함께 조직한 협성회는 처음에는 학생 단체였으나 곧 일반인들도 참여하였다. 협성회는 뒷날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원형이 되었다. 회의 용어 ‘동의’, ‘재청’, ‘개의’ 등이 이때 처음으로 쓰이고, 박수치는 법도 이때에 생긴 것이다. 서른 살(1900년)에 배재학당 보통과를 졸업한 그는 당대 대표적인 민족운동가인 전덕기 목사가 있던 상동교회 청년학원 국어강습소에 국어문법과를 개설하여 자신의 연구 결과를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때의 강의록을 추려 서른한 살 때 『대한국어문법』을 출판하였다.

교육자로서 그는 청년학원·공옥학교·서우학교·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명신여학교) 등에서 교사를 이화학당·흥화학교·기호학교·융희학교·중앙학교·휘문의숙·보성중학교·사범강습소·배재학당등에서 강사를 지냈다. 주시경은 나라가 기울던 1905년, 국어 연구와 사전 편찬에 관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1907년 정부 내 학부(學部)의 국어연구소 위원으로 들어가, 나라가 망해도 국어만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하였다. 또 국치의 해인 1910년 『국어문법』을 지었고, 최남선이 창설한 광문회에서 간행되는 국어 관계 서적의 교정과 『말모이』(국어사전)의 편찬 책임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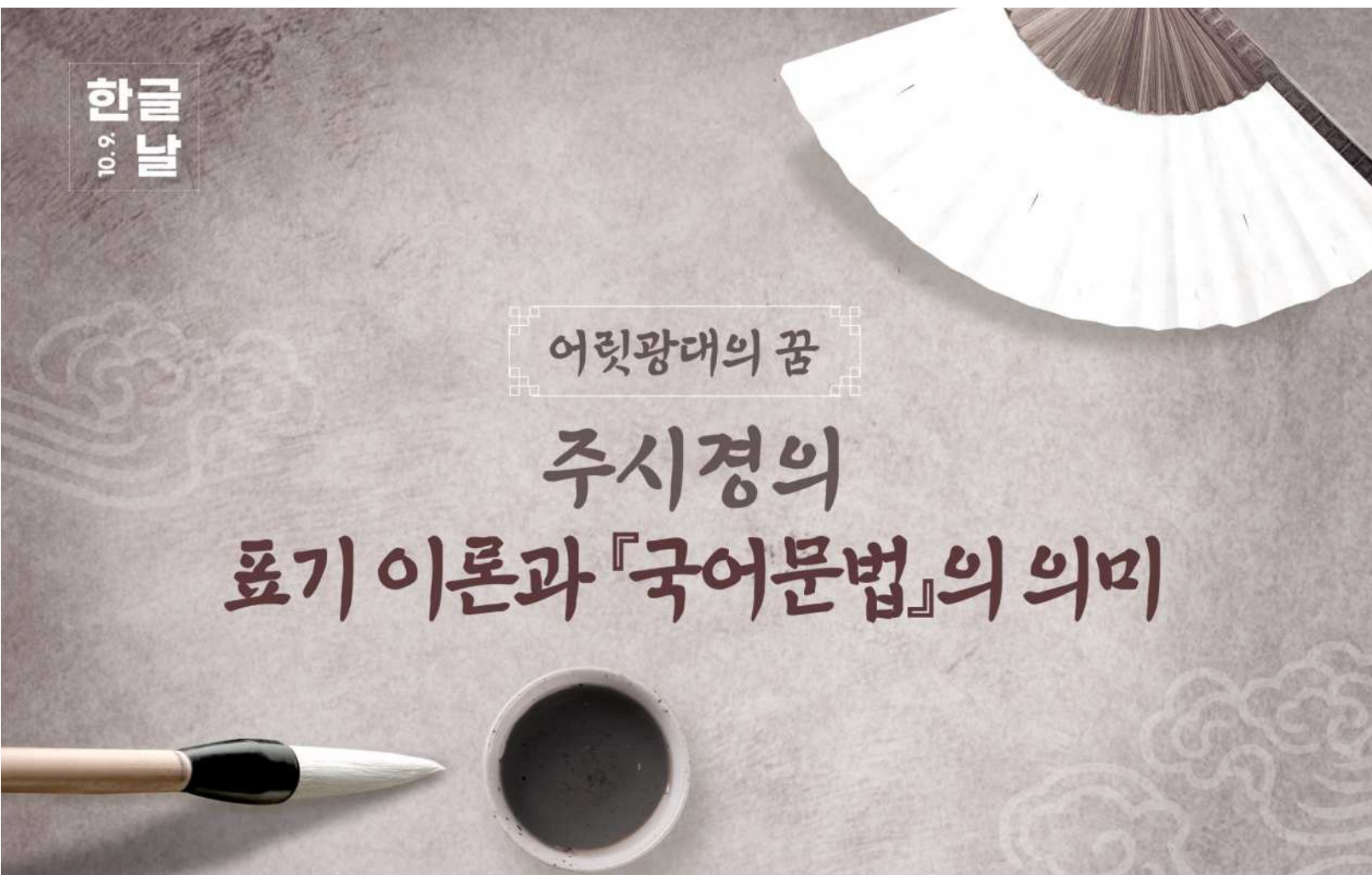
한말과 일제 강점 초기에 한글 연구와 우리글 지키기에 온 힘을 쏟고 최현배·김두봉·권덕규·염상섭·변영태·현상윤·신명균·이규영·장지영·이병기 등 훗날 국어 연구의 큰 별이 된 제자들을 키워, 광복 후 남북한에서 한글 운동의 선두주자로 만들었다. 광복 후 미군정이 영어를 공용어로 삼으려 할 때 이를 막아내고, 남과 북에서 한글 전용 정책을 이끈 것도 한힌샘의 제자들이었다.



▲한힌샘 주시경의 동상(사진 제공: 한글학회)

주시경은 1914년 국내의 독립운동 동지들이 구속되자 해외 망명을 준비하던 중 급환으로 서른아홉 살에 별세하였다. 한힌샘은 어느 독립운동가 못지않은 애국자이고 ‘한글’이란 이름을 창안한, 그래서 세종대왕의 후계자라 하겠다. 한데 지금 그의 업적과 해적이를 아는 이 얼마나 될까. 한말 격변기부터 일제 강점 초기 민족 수난의 시대에 언론인·계몽운동가·교육자·국어학자로서 ‘한글 연구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주시경 선생과 그의 제자들이 있었기에 한글·국어이 지켜질 수 있었고 널리 보급되어 오늘에 이른다.

어릿광대의 꿈 주시경의 표기 이론과 『국어문법』의 의미



글. 김병문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국문의 어릿광대’

『국문강의』(1906)의 발문에서 주시경은 “나는 다만 국문의 한 어릿광대 노릇이나 하려는 것이니, 고명하신 분들이 앞으로 말과 글을 연구하고 수정하여 좋은 도구로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랬다. 그가 바랐던 것은 그저 ‘국문의 어릿광대’가 되는 것일 뿐이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국문’, ‘고명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더 외면당하던 ‘국문’이 자신의 어릿광대짓으로나마 그분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면, 그리하여 진지한 연구의 대상이 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자신은 족하다는 것이었다. ‘국문의 어릿광대 노릇이나 하겠다’는 주시경의 말은 그러나 그저 겸손의 표현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아마 당시에 그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국어 연구의 선구자’로 평가받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아는 주시경은 그 ‘어릿광대 노릇’과 더불어 비로소 태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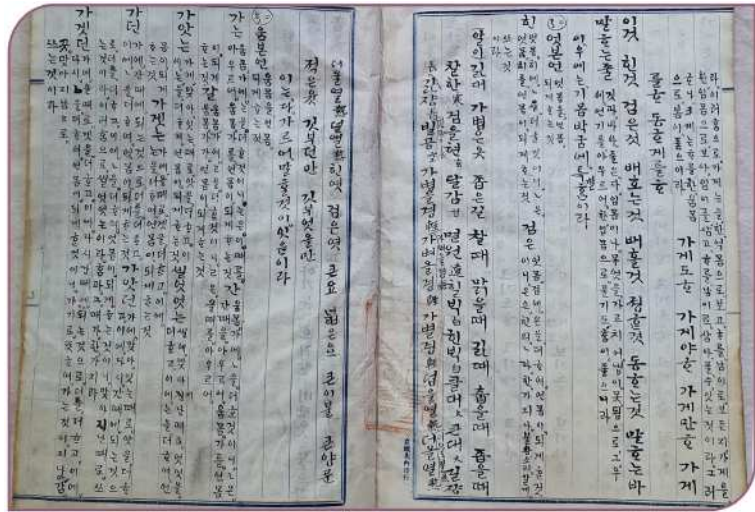
말의 경계와 ‘본음, 원체’

배재학당 학생이던 주시경은 1897년 『독립신문』에 두 편의 ‘국문론’을 싣는다. 첫 번째 ‘국문론’이 ‘왜 국문을 써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글은 ‘그 국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었다. 첫 번째 글은 그가 국문을 써야 하는 이유를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생활 습속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두 번째 글에서 그는 국문을 옳게 쓰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여기서 문법을 제대로 알고 글을 쓴다는 것을 그는 말의 경계를 분명히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예컨대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여 일컫는 ‘이것’과 여기에 붙는 토 ‘이’를 합쳐서 ‘이거시’라고 적는다면 두 말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것이’라고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문법’에 대한 대단히 소박한 이해이다. 그러나 이 별로 대수롭게 보이지 않는 생각이 바로 그의 이른바 분석주의 이론과 당시로서는 대단히 혁신적이었던 그의 표기 이론의 출발점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을 맡아 보다’의 ‘맡아’를 주시경 당대에는 ‘맞하’로 적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맞하’가 아니라 ‘맡아’로 적어야 말의 ‘원체, 본음, 법식’에 맞다고 했는데, ‘맞하’가 동사의 어간(‘말-’)과 어미(‘-아’)의 경계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은 것이 라면 ‘맡아’는 이들의 경계가 분명하게 구획된 표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원래의 형태’, ‘본래의 소리’를 적어야 ‘법식, 문법’에 맞다는 것이 말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맡는, 맡지, 맡아’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만는, 만찌, 마타’가 되는데, 이와 같이 어떤 말과 어울리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 현실적인 소리가 아니라, 달라지기 전의 본래의 소리, 원래의 형태를 밝혀 적자는 것이 주시경식 표기 이론의 핵심이다. ‘국문’은 ‘국어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사진처럼 반영해야 한다고 본 주시경에게 ‘국어의 소리’는 따라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귀에 들리는 소리였다기보다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소리였던 것이다. ‘말고, 맡는’의 ‘맡’은 어느 누구도 발음할 수 없고, 또 그래서 아무도 들어 본 적이 없는 소리가 아닌가.

들리지 않는 소리와 ‘국어문법’의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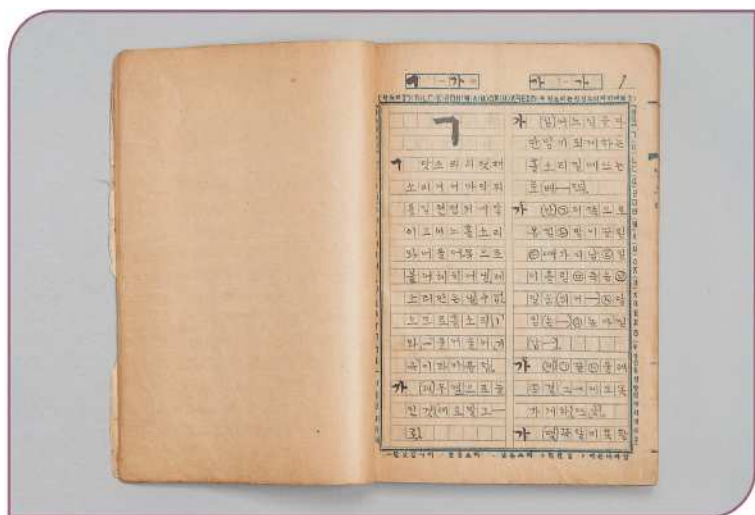
우리가 아는 ‘국어 교사’, ‘한글 학자’로서의 주시경의 모습은 대체로 1905년 이후의 주시경이다. 바로 이때부터 그는 서울의 각급 학교에서 국문과 국어를 가르쳤고, 1907년부터는 국문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국어강습소를 운영하여 그 졸업생들과 함께 ‘국어연구학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이 시기 주시경은 지식영을 비롯한 윗세대의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전통 문헌들을 접할 수 있었고, 또한 자신보다 아래의 젊은 세대들과 강습소를 운영하고 단체 활동을 해 나가며 자신의 ‘국어문법’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전자의 결실은 각종의 전통 문헌을 토대로 하여 우리말의 소리를 정리한 『국어문전음학』(1908)이고 후자의 성과는 ‘짬뽕갈’과 ‘기난갈’을 통해 우리말의 문법을 정리한 『국어문법』(1910)이다. 그리고 이 둘은 표기의 문제를 통해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국어문법』(사진 출처: 한글학회)

주시경은 지식영을 통해 얻어 본 『훈민정음』예의의 ‘중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이라는 구절을 모든 초성을 중성에 쓸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표기 이론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성에 쓸 수 있는 글자를 8자로 제한한 『훈몽자회』를 국문을 망친 주범이라고 보았다. ‘百年’을 ‘임시의 음’인 ‘뱅년’으로 적지 않고 본래의 소리인 ‘백년’으로 적듯, 귀에 들리는 소리인 ‘남’이 아니라 본음인 ‘낫, 낫, 낫, 낫’으로 구별해서 적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초성을 중성에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시경의 주장이었다. ‘낫, 낫, 낫, 낫’과 같은 것들은 아무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오직 글로 써서 눈으로만 구분할 수 있는 소리이다. 주시경은 이런 것들을 ‘본음’이라고 보았고 귀에는 들리지 않는 ‘본음’을 세심히 구별해 내는 작업이 우리를 ‘국어문법의 사상’으로 인도한다고 했다.

‘국어문법’이 실제 발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이와 변종에 눈길을 돌릴 겨를이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주시경이 발견한 추상적 층위의 소리는 실제 발화에서 발견되는 그 수많은 변이와 변종 저 너머에 있는 ‘국어문법’을 구상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이 ‘국어문법의 사상’을 김두봉, 최현배 같은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 열심히 일궈 나갔다. ‘말이 올라야 나라가 오른다’와 같은 발언을 통해 이른바 어문민족주의자의 면모를 확연히 보여주는 것도 바로 이 무렵부터이다. 이런 모습은 1910년 무렵 제자들과 함께 대중교로 개종했다는 증언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말모이』원고(1911년 경)(사진 출처: 국립한글박물관)

남북에 흩어진 주시경의 유산

주시경이 말년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작업은 물론 『말모이』이라는 이름의 조선어사전 편찬이었다. 조선광문회의 야심찬 기획이었으나 1914년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끝내 결실을 보지는 못했다. 현재 남아 있는 일부 원고들을 보면 주시경이 이 사전에서 선보이고자 했던 그의 문법 체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의 문법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었던 것 같다. 사전 작업을 함께 했던 그의 수제자 김두봉이 펴낸 『조선말본』마저 주시경의 최종 문법은 담아내지는 못했고, 최현배가 넘어섰다고 생각한 스승의 문법은 1910년의 『국어문법』일 뿐이었다.

주시경의 사후 그의 제자들은 대체로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주시경의 뒤를 따라 전통적 표기 방식의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그들은 1933년 <한글마춤법통일안>을 발표했고, 이제 애초의 목적이었던 조선어사전 편찬을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인해 이 사전 편찬 작업은 또 다시 무산된다. 해방 이후 주시경의 제자들은 남과 북으로 흩어지고, 한국어/조선어 연구의 주된 흐름은 차츰 서양의 ‘선진’ 이론을 직접 공부한 그 아랫세대가 주도하게 된다. 그러나 표기법의 면에서는 주시경과 조선어학회의 기초 작업이 탄탄했던 덕택에 남북의 이질화를 이만큼이나마 막아낼 수 있었다.

물론 한눈에 보기에도 남북의 출판물에는 서로 다른 표기 규범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차이를 가장 도드라지게 하는 것은 역시 두음법칙에 관한 것이다. 남쪽은 ‘ㄹ’이 낱말의 첫소리에 오면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나므로 ‘근로’의 ‘로(勞)’를 ‘노동’에서는 ‘노’로 적는다. 그러나 북쪽은 ‘勞’의 본음이 ‘로’이므로 말의 첫소리에 오든 그렇지 않든 ‘근로, 로동’과 같이 모두 그 본래의 음을 적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마치 ‘국가’의 ‘국(國)’이 ‘국민’에서는 ‘궁’으로 소리 나지만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본음인 ‘국’으로만 적듯이.

북쪽의 이런 주장은 물론 본음, 원체, 법식에 맞게 적어야 한다는 주시경식 표기 이론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인 소리와 관계없이 원래 형태를 밝혀 적자는 것이 주시경의 주장이었던 데 비해, 북쪽에서는 아예 현실 발음까지 바꿔 버렸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언어의 발전’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막 천명한 ‘사회주의 북한’이라는 맥락을 떠나서 이 규정의 성립을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언어 이질화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는 북쪽의 두음법칙 관련 규범이 주시경 및 조선어학회가 정립한 표기법의 근본 원칙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은 남북 언어 통합 시대의 새로운 언어 규범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가 한다.

오늘 다시 주시경을 읽는다는 것

‘국어문법’이란 ‘국어’를 말하는 모든 화자들이 공유하는 문법을 뜻할 것이다. 주시경이 살았던 당대의 시대적 과제가 바로 계급적 지역적 차이를 뛰어넘는 균질적인 국민 의식의 창출이었다면 그가 구상한 ‘국어문법’은 바로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대한 학문적 응답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대적 과제가 ‘국어문법’으로 상징되는 균질적이고 획일적인 국가 의식의 환기에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다양한 계층과 지역, 세대의 차이가 모자이크처럼 반짝이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제도와 담론의 모색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남겨진 과제가 아닐까. 주시경을 곱씹어 보는 것 역시 그의 삶과 학문을 오늘에 반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시대에 충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시대에 진지하게 응답하기 위해서일 테다. 그러나 그것은 근대가 이룬 성과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바로 그 근대의 모순과 문제를 넘어서는 지혜가 필요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시경이 ‘어릿광대’를 자처하며 가졌던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 아닐까.

주시경의 유산

한글날
10.9.

주시경의 유산

글. 정재환 (역사학자,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

별이 지다

국문 연구, 말모이 편찬, 한글 강습 등으로 불철주야 장안을 누비던 주시경이 1914년 7월 27일 3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훗날 제자 김윤경은 주시경 선생은 1911년 일제가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105인사건의 여파로 국내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자, 망명을 결심하고, 방학 때에 고향 부모를 찾아뵈었으며, 서울로 돌아와 떠날 준비를 하던 중에 ‘체중’으로 돌아가셨다고 썼다(김윤경, 「주시경 선생 전기」, 『한글』 126(1960)).

돌연한 스승의 죽음에 제자들은 통곡했다. 김두봉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라며 슬퍼했고, 스승의 부탁으로 동래군 동명학교 하기강습회에서 수업을 하던 중 부음을 들은 최현배는 강습생들과 함께 대성통곡했다. 생전의 주시경은 상동청년학원을 비롯해 공옥학교, 서우, 이화, 명신, 흥화, 기호, 숙명, 진명, 휘문, 보성, 중앙, 융희, 사립 사범강습소, 배재, 서북, 협성, 경신, 영창, 외국인 한어연구소 등을 오가며 일주일에 40시간에 이르는 강의를 소화했다.



▲한현생 주시경 선생(사진 출처: 한글학회)

“눈물을 머금은 ‘주보파리’는 언제나 동대문 연지동에서 서대문 정동으로, 정동에서 박동으로, 박동에서 동관으로 돌아다녔다. 스승은 교단에 서시매, 언제든지 용사가 전장에 다다른 것과 같은 태도로써 참되게, 정성스럽게, 뜨겁게, 두 눈을 부릅뜨고 학생을 응시하고, 거품을 날리면서 강설을 하셨다. 스승의 교수는 말 가운데 겨레의 혼이 들었고, 또 말 밖에도 나라의 생각이 넘쳐났다.”

-최현배, 「나의 사랑하는 교육자 주시경 스승」(1963)

두 눈을 부릅뜨고 거품을 날리며 겨레의 혼과 나아갈 길을 역설하며 사자후를 토하는 모습이 활동사진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지금 청소년들은 과연 강의실에서 이러한 스승을 만날 수 있을까? 주시경은 언어와 민족을 운명공동체로 생각했다.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의 청년들에게 지식을 전하고 겨레의 혼을 불어넣어야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주시경은 전사와 같은 심경으로 교단에 섰다. 국어연구·강의·저술만으로도 24시간이 부족했지만, 그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있었다. 바로 조선어 사전을 만드는 것이었다.

주시경은 1897년 4월과 9월 독립신문에 게재한 「국문론」이란 논설을 통해 한자 폐지와 국문 전용을 제안하면서 ‘옥편을 만들고 문법을 정리하고 철자법을 통일할 것, 국문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서할 것’을 주장했다. 사전(=옥편)을 만들어야 조선어가 과학적 체계를 가진 언어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전 편찬은 간단하지 않았다. 1910년 10월에야 최남선이 창설한 조선광문회와 인연을 맺으면서 제자 김두봉·권덕규·이규영 등과 함께 ‘말모이’ 편찬을 시작할 수 있었다.

주시경 서거 후 김두봉, 권덕규, 민명균, 장지영 등이 스승을 대신해 출강했다. 스승의 빈자리를 채우고 위기에 처한 조선어 교육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김두봉은 보성, 휘문 등에 출강하면서 스승이 완성하지 못한 ‘조선말글본’의 연구를 계속해 『조선말본』(1916)을 저술했다. 그러나 주시경 사후 말모이 편찬 작업은 중단되었고, 최남선이 계명구락부를 결성하여 조선어사전 편찬 사업을 재개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김두봉은 일경의 추적을 피해 상하이로 망명했고, 1920년에는 이규영마저 세상을 떠남으로써 말모이 편찬은 난파선처럼 표류했다.

제자들이 말모이 깃발을 올리다



▲잡지『한글』제5권 제1호 외 36권(사진 출처: 국립한글박물관)

1929년 10월 31일 오후 7시 조선교육협회에서 열린 한글날 기념식에서 사회 각계 인사 108인이 참여한 조선어사전편찬회가 조직되었다. 김활란, 박승빈, 박희도, 방정환, 송진우, 안재홍, 양주동, 유억겸, 유진태, 윤치호 등 당시 민족운동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했지만, 중심은 조선어연구회의 권덕규, 김윤경, 신명균, 이병기, 이상춘, 이운재, 정열모, 장지영, 최현배 등 주시경의 제자들이었다.

김두봉은 108인에 이름을 올렸지만, 상하이의 인성학교에서 교장을 맡고 있었기에, 실제 활동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108인 중 흥미로운 인물이 있다. 경남 의령 출신의 이극로는 고학으로 상해 동제대학을 다녔고, 독일 프리드리히 빌헬름대학(지금의 베를린 훔볼트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공부했으며, 1927년 5월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29년 귀국한 이극로는 조선어연구회를 찾아가 회원이 되었고, 타고난 도전 정신과 추진력으로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했다.

그런데 경제학을 전공한 이극로가 왜 조선어연구회를 찾아갔을까? 독립운동을 위해 고국을 떠난 이극로는 서간도 동창학교에서 주시경의 제자 김진에게서 한글 공부의 기회를 얻었고, 상해에서 만난 김두봉을 통해 주시경의 학설과 사상을 받아들였다. 이극로는 주시경을 만난 적도 없지만, 김두봉을 통해 주시경 문하에 들어갔으며, 어문민족주의자로서 사전 편찬을 시급한 민족적 과제로 생각했고, 어문운동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고 민족혁명의 기초를 세워야겠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주시경의 제자들은 언어를 단순히 의사 표현의 수단이 아닌 생각과 정신을 담는 그릇, 민족의 생명줄로 파악했고, 이런 생각은 이은상이 작성한 사전 편찬 취지서에 오롯이 담겨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낙오된 조선 민족의 갱생할 첩경은 문화의 향상과 보급을 급무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문화를 축성하는 방편으로는 문화의 기초가 되는 언어의 정리와 통일을 급속히 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를 실천할 최선의 방법은 사전을 편성함에 있는 것이다.”

-조선어학회, 『조선어학회사전편찬회 취지서』, 『한글』 31(1936)

이들에게 사전은 단지 말의 의미를 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취지서에 담긴 ‘낙오-갱생-첩경-사전 편찬’은,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사전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1919년 3.1 독립선언서와 조금도 다를 바 없고, 사전편찬회에 참여한 발기인의 숫자와 면면을 통해서, 사전 편찬이 조선 민족의 독립을 갈망한 민족운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말을 모으는 것이 사전 만들기의 첫걸음이지만, 설명을 위해서는 어문의 정리와 통일이 선행되어야 했다. 1930년 12월 13일 조선어연구회 임시총회에서 ‘조선어철자 통일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31년 1월 24일 ‘외래어 표기법 및 부수 문제 협의회’를 열어 모든 문제를 조선어학회(조선어연구회에서 이름 바꿈)가 담당하게 되었으며, 1934년 12월 2일에는 ‘조선어 표준어 사정 위원회’를 구성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조선어를 비로소 질서정연하고 논리적이며 과학적인 체계를 갖는 근대적인 언어로 정비하는 대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사진 출처: 한글학회)

첫 성과는 1933년 10월 29일 한글날 발표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었다. 1930년 12월 13일부터 1933년 10월 19일까지 136차례의 독회를 열었고, 소요된 시간은 442시간 40분이었으며, 권덕규, 김윤경, 박현식, 신명균, 이병기, 이희승, 이운재, 장지영, 정인섭, 최현배, 정열모, 이극로, 이만규, 이세정, 이상춘, 이탁, 이갑, 김선기 등 18명의 제정위원 중 대다수가 주시경의 제자였다.

1933년 10월 29일 ‘통일안’을 발표했을 때, 동아일보는 조선 문화사상 잊지 못할 날이며 영원히 기억해야 할 날이라며 우리 겨레 최초의 철자법이 완벽한 것일 수는 없겠지만 어문생활의 기초가 되는 겨레말의 표기법이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말글살이의 합리적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상찬했다. 현행 ‘한글맞춤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통일안’이 주시경의 형태주의 문법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그의 학설을 잇고 발전시키고 정립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1936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제정하고, 1940년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제정함으로써 근대적 체계를 갖춘 민족어 3대 규범이 완성되었고, 조선어사전편찬회는 사업 시작 11년 만인 1940년 3월 총독부로부터 사전 편찬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1940년대 들어 ‘국어 상용(일본어 상용)’을 기치로 조선어 말살을 본격화한 일제는 1942년 10월 1일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켜 회원들과 후원자 등 관련자를 모두 검거함으로써 사전 편찬은 중지되었고, 주시경의 꿈도 좌절했다.

검거된 조선어학회는 불법적인 구금, 구타, 고문 등으로 고통받았고, 이운재와 한징은 지옥 같은 옥살이를 견디지 못해 차디 찬 형무소에서 불귀의 객이 되었다. 조선어학회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전을 만드는 것, 조선어를 연구하는 것이 심오원리를 품은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총독부 사법부의 판단이었으니, 일제가 ‘조선어학회사건을 조작했다’기보다는 ‘조선어학회 활동의 본의를 정확히 꿰뚫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스승의 꿈을 이루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했고,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조선어학회의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은 출옥했다. 8월 19일 서울로 귀환한 조선어학회는 이튿날부터 활동을 재개하여 첫 한글 교과서 『한글 첫 걸음』을 편찬했고, 말살 위기에 몰렸던 민족어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말 도로 찾기 운동’을 전개했으며, 문맹 퇴치와 교사 재교육을 위한 한글 강습, 잡지 『한글』발행, 한글 전용 운동, 사전 편찬 등을 힘차게 추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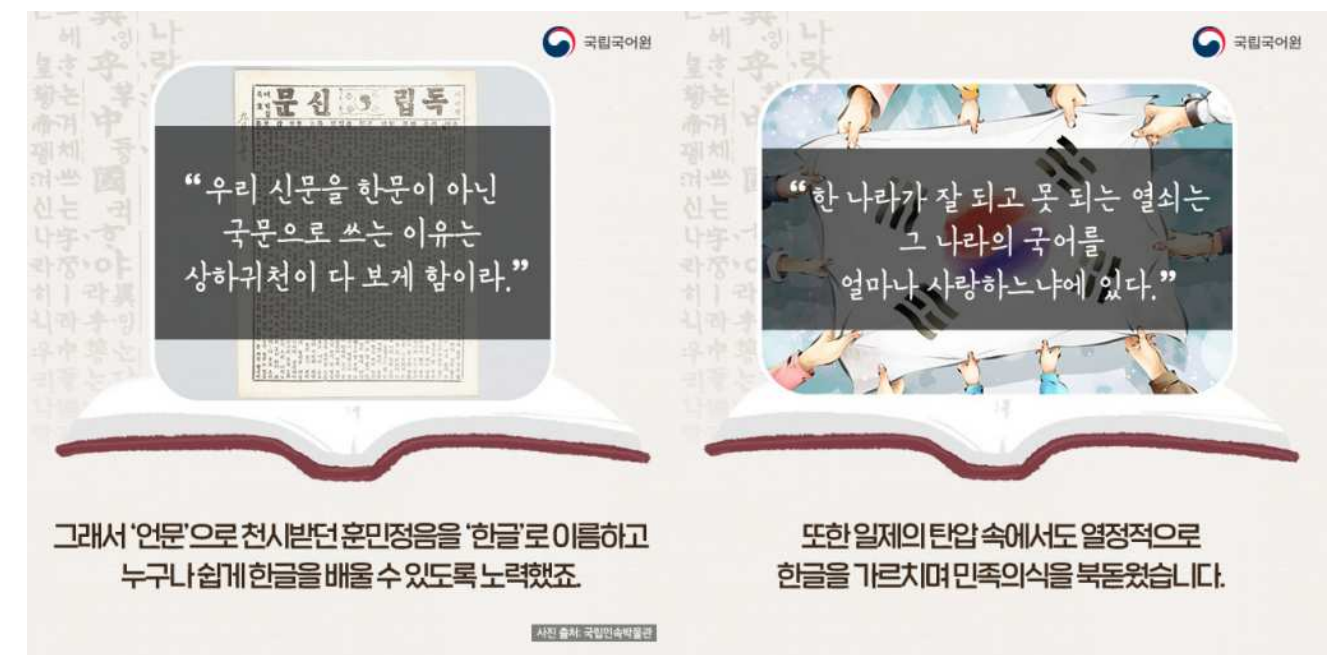
광복이 되었지만, 사전 편찬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1957년에야 전 6권으로 『큰사전』을 완성할 수 있었다. 28년간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조선어학회의 한글 전용 운동은 주시경의 국문 전용의 뜻을 계승한 것이었고, 1948년 ‘한글전용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문자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문자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해 한글 전용의 가치를 들었으나, 한자파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1990년대까지도 대부분의 신문이 국한문 혼용으로 발행되었지만, 21세기 들어서면 서 한자는 자취를 감추었고, 한글 시대가 열렸다.

1914년 주시경은 39세를 일기로 짧은 삶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과 꿈은 제자들에게 이어졌고, 제자들은 35년간의 식민지하에서도, 광복 후 새 사회 건설의 격랑 속에서도 스승의 가르침과 꿈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다. 최현배는 주시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문법서 『우리말본』(1937)을 완성했고, 주시경 사후 41년이 되는 해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주 스승에게서 한글을 배웠을 뿐 아니라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사랑과 그 연구의 취미를 길렀으며 겨레 정신에 깊은 자각을 얻었으니, 나의 그 뒤 일생의 근본 방향은 여기서 결정된 것이었다. …… 나는 스승의 부탁에 따라 우리말 우리글을 오늘까지 갖고 닦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이니, 이 사명을 다한 뒤에는 스승에게로 돌아가 복명할 작정이다.”

-최현배, 「나의 걸어온 학문의 길」(1955)

남긴 말씀으로 보는 주시경의 뜻



마음과 마음을 잇는 우리글
국립국어원이 지켜 가겠습니다.



574돌 한글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 원장 소강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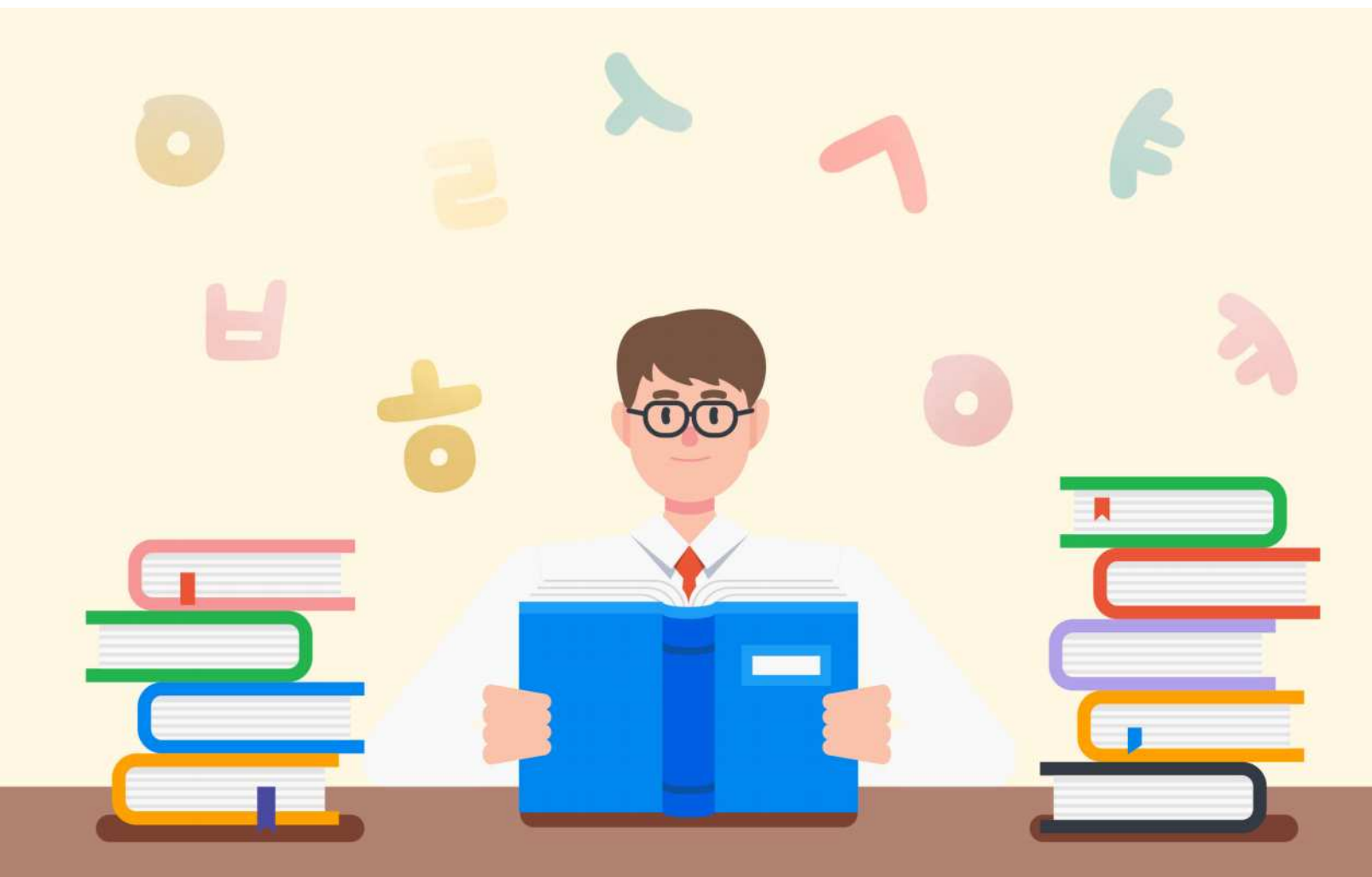
연초만 해도 한글날쯤 되면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가라앉고 동네 놀이터에서는 꼬마들이 재잘거리고, 마을 장터에서는 흥정을 주고받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치고, 경기장에서는 목청껏 응원가를 불러대는 사람들로 가득차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이, 오랜 벗과 만나 술 한잔 기울이는 일이 조심스러운 것이 지금의 일상입니다.

마스크는 입만 가린 것이 아니라 말소리도 가두었습니다. 학교에서, 시장에서, 놀이터에서 들리던 소리들이 모두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문자, 소리,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는 컴퓨터 덕분에 지금의 갑갑함을 그나마 버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해 봅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 지금 어떻게 마음을 전하고 있을까? 한자나 로마자를 빌려 쓰고 있다 하더라도 애초에 우리말을 적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이런 문자들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0년의 한글날은 그래서 더욱 특별하게 여겨집니다.

한글은 정보화의 측면에서도 널리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글자의 생성 원리가 정연하고, 글자와 발음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 면에서 모두 편의성과 경제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한글이 인공지능과 같은 정보 기술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마침 국립국어원은 올 8월에 18억 어절 규모의 한글 자료를 ‘모두의 말뭉치’라는 이름으로 일반에 공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구축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글 덕분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일이 더욱 일상화될 것이고 그만큼 인공지능이나 자동번역과 같은 정보화 기술은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한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의 한글날도 여전히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처럼 떠들썩하게 축제를 열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고 서운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말글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보내셨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히 지내시길 바라며, 내년은 왓지지결 한글날로 만나 뵙길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문법 범주(5)



글. 이선웅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뜻깊은 한글날 덕분(?)에 오랜만에 만나는 이번 호에서는 피동과 사동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여덟째, 피동은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스스로 동작이나 작용을 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범주이다. 피동을 문법 범주로 이르면 피동법, 피동으로 된 문장을 피동문, 피동문을 만드는 동사를 피동사라고 한다. 피동에 대비되는 범주는 능동이라고 한다.

- (1) 김형사가범인을 잡았다.
- (2) 범인이 김형사에게 잡혔다.
- (3) 아빠가타임머신을 만들었다.
- (4) 아빠에 의해 타임머신이 만들어졌다.

(1)은 동작을 하는 주체인 ‘김 형사’가 주어로 사용된 능동문이다. 반대로 (2)는 ‘김 형사’에 의해 동작이 가해지는 대상인 ‘범인’이 주어로 사용된 피동문이다. 능동문을 만드는 동사인 ‘잡다’는 능동사이고, 피동문을 만드는 동사인 ‘잡히다’는 피동사이다. 피동사는 이처럼 능동사 어간에 ‘-하-’를 비롯하여 ‘-아-, -가-, -리-’가 붙어 만들어진다. 피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를 피동 접미사라고 한다. 피동문은 (4)와 같이 ‘-아/-어지다’가 쓰인 형식도 있다. ‘-아/-어지다’에 있는 ‘지다’는 보조 동사로서 원래는 ‘-어 지다’로 띄어 써야 할 것인데 관습적으로 붙여 써 왔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의 한글 맞춤법 해설(2018. 12. 21.)에서도 붙여 쓰도록 하고 있다. 피동사에 의한 피동을 어휘에 의한 것이라 하여 어휘적 피동, ‘-어지다’에 의한 피동을 원래는 띄어서 쓰는 통사적 구성에 의한 것이라 하여 통사적 피동이라고 한다.

아홉째, 사동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이나 작용을 하도록 시키거나 유발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 이 개념 정의에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시키는 이라고 하여 사동주,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시킴을 당하는 이라고 하여 피사동주라고 한다. 사동을 문법 범주로 이르면 사동법, 사동으로 된 문장을 사동문, 사동문을 만드는 동사를 사동사라고 한다. 사동에 대비되는 범주는 주동이라고 한다.

- (5) 진희가밥을 먹었다.
- (6) 언니가진희에게 밥을 먹였다.
- (7) 언니가진희에게 밥을 먹게 했다.

(5)는 동작을 하는 주체인 ‘진희’가 주어로 사용된 주동문이다. 그러나 (6)은 ‘진희’가 ‘언니’에 의해 동작을 하게 되는 대상으로 나타난 사동문이다. 주동문을 만드는 동사인 ‘먹다’는 능동사이고, 사동문을 만드는 동사인 ‘먹이다’는 사동사이다. 사동사는 이처럼 주동사 어간에 ‘-이-’를 비롯하여 ‘-하-, -가-, -리-, -우-, -구-, -추-’ 등이 붙어 만들어진다. 사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를 사동 접미사라고 한다. 사동문은 (7)과 같이 ‘-게 하다’가 쓰인 형식도 있다. 사동사에 의한 사동을 어휘에 의한 것이라 하여 어휘적 사동, ‘-게 하다’에 의한 사동을 통사적 구성에 의한 것이라 하여 통사적 사동이라고 한다. 어휘적 사동이 짧다고 하여 짧은 사동(단형 사동), 통사적 사동이 길다고 하여 긴 사동(장형 사동)이라고 하기도 한다.

(8) 그들이 길을 {넓혔다, 넓게 했다}.

(8)은 사동문이기는 하나 (6), (7)과는 달리, 사동주에 의해 피사동주가 어떤 동작이나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태가 변화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예는 엄밀히 말하면 위에서 보인 사동의 정의와 맞지 않으나, 서술어 부분의 형태가 (6), (7)과 같기 때문에 학교 문법에서는 사동으로 다루고 있다.

(9)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10)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힌다.

(9)에서는 사동주인 ‘엄마’가 직접 아이에게 밥을 먹여 주는 행위를 하여 ‘아이’가 밥을 먹는 행위에 참여하는 반면, (10)에서는 사동주인 ‘선생님’이 ‘학생’이 책을 읽는 행위를 말 등을 통해 시키기만 했을 뿐 그 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동주가 피사동주의 행위에 함께 참여하는 사동을 직접 사동, 그렇지 않은 사동을 간접 사동이라고 한다. 짧은 사동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양쪽으로 자주 쓰이나, 긴 사동은 거의 모든 경우에 간접 사동으로 쓰인다. 피동과 사동의 용어 사용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능동’, ‘주동’은 각각 ‘피동’, ‘사동’과 대비되는 개념을 편의상 나타낸 것일 뿐 별개의 실체는 아니다. 곧 세 개의 실체에 대해 네 개의 용어가 있다는 것이다. 영어에서는 ‘active(능동/주동)’, ‘passive(피동)’, ‘causative(사동)’의 세 개의 용어만 있을 뿐이다. 예컨대 ‘밥을 먹다’라는 똑같은 표현에 대해 ‘밥이 먹히다’라는 피동 표현과 ‘밥을 먹이다’라는 사동 표현이 성립된다. ‘밥을 먹다’를 ‘밥이 먹히다’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볼 때에는 능동이라고 부르고, ‘밥을 먹이다’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볼 때에는 주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피동과 사동, 다시 정리해 볼까요?

- 피동:**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스스로 동작이나 작용을 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범주
- 사동:**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이나 작용을 하도록 시키거나 유발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
- 능동:** 피동에 대비되는 범주
- 주동:** 사동에 대비되는 범주
- 어휘적 피동:** 피동사에 의한 피동
- 통사적 피동:** ‘-어지다’에 의한 피동
- 어휘적 사동:** 사동사에 의한 사동
- 통사적 사동:** ‘-게 하다’에 의한 사동
- 직접 사동:** 사동주가 피사동주의 행위에 함께 참여하는 사동
- 간접 사동:** 사동주가 피사동주의 행위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사동

큰집으로 김장하러 가는 날 '큰', '작은' 띄어쓰기

실전 띄어쓰기



큰집으로 김장하러 가는 날 '큰', '작은' 띄어쓰기



할머니는 늘 우리더러 **큰손님** 이래요.
우리가 제일 어린데.

헛갈리는 '큰', '작은'의 띄어쓰기,
쉽게 구분할 방법은 없을까요?



'큰', '작은' 띄어쓰기

'큰', '작은'이 형용사로서 크기나 범위 등을
뜻하는 관형어로 쓰일 때는 띄어쓰고,
명사에 붙어 합성어로 굳어진 경우에는 붙여 써요.

- 큰/작은 집: 집의 규모가 크거나 작은 집
- 큰-집: 만이가 사는 집 또는 종가집
- 작은-집: 따로 살림하는 아들이나 아우, 작은아버지의 집
▶ 골목에서 가장 큰 집이 너희 작은-집이란다.
- 큰/작은 형: 키나 몸집이 크거나 작은 형
- 큰-형: 둘 이상 가운데 맏이인 형
- 작은-형: 둘 이상의 형 가운데 맏형이 아닌 형
▶ 두 형 중에 키가 작은 형이 큰-형이야.

- 큰-상: 잔치 때 주인공을 대접하기 위해 특별히 많은 음식으로 차리는 상
- 큰-소리: 야단치거나 잘난 체하거나 당당히 하는 말
- 큰-손: ① 특별히 잘 모셔야 할 귀한 손님
② 대규모로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관
- 큰-절: 서서 하지 않고 앉으면서 허리를 굽혀 머리를 조아리는 절
- 큰-달: 한 달이 양력으로는 31일, 음력으로는 30일까지 있는 달
- 작은-달: 양력으로 한 달이 31일, 음력으로는 한 달이 29일이 되는 달
- 큰-방: 집안의 가장 어른이 되는 부인이 거처하는 방이라는 뜻으로, '안방'을 달리 이르는 말
- 작은-방: 집 안의 큰방과 나란히 달려 있는 안방

맛있게 익어 가는 김장김치처럼,
바른 띄어쓰기 생활도 무르익어 가길 바랍니다.



대패삼겹살? 삼겹살이 대패(大敗)했다고?



국립국어원 2020-04-01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811-01

공공 영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안내서



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새로 제정**

영어에서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확대,
음식명 번역·표기 추가

번역 방식을 제시

음역: 한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살려서 하는 번역
의미역: 용어의 의미를 살려서 하는 번역
한자역: 한국어의 한자어를 그대로 살려서 하는 번역

분야별 번역

구분	국문명	영어	중국어	일본어
자연 지명	남산	Namsan Mountain	南山	ナムサン(南山)
인공 지명	국제시장	Gujje Market	国际市场	クタチエ(國際)市場
도로명	경인로	Gyeongin-ro	京仁路	キョニンロ

용어의 구조 분석

전부 요소 해당 용어에서 유래와 특징 등 개별성을 나타내는 앞부분
후부 요소 해당 용어에서 유형과 실제 등 보편성을 나타내는 뒷부분

구분	전부 요소	후부 요소
국문명	하늘공원	하늘
영어	Haneul Park	Haneul Park
중국어	天空公园	天空公园
일본어	ハズル公園	ハズル公園

한강(영어) Han River / Hangang River
대패삼겹살(중국어) 大败五花肉 / 薄切五花肉
노량진(일본어) 盤梁津 / ノリヤンジン





난 곰탕! 중국어로 음식명이 쓰여 있어서 혼자서도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음식명

그치? 이번 혼령에서는 한국의 음식명을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 음식의 재료, 조리법 등을 살펴 각 언어로 번역하고 있어.

MENU



묵은지찜 Mugeunjjijim
Braised Pork with Aged Kimchi
炖酸泡菜
熟成キムチの蒸し物



불고기 Bulgogi
Bulgogi
烤牛肉
ブルゴギ



곰탕 Gomtang
Beef Bone Soup
牛骨汤
コムタン



삼치구이 Samchigui
Grilled Spotted Mackerel
烤鲷鱼
サワラ焼き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또 오세요.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자.

재난 안전 문자

앗! 태풍이 오고 있대.

경기도 태풍주의보발령
Gyeonggi-do Issuance of Typhoon Advisory
京畿道发布台风预警
キョンギ道台風注意報発表

경기도로 이동하기 전에 재난 문자를 받아서 다행이야.

공공언어 통합 지원

정책용어 상담
정책용어 상담
정책용어 상담

공공언어
공공언어 감수
공공언어 감수

공공용어 번역
공공용어 번역
공공용어 번역

공공용어 번역
공공용어 번역
공공용어 번역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
<https://publang.korean.go.kr>

국립국어원은 공공 용어의 외국어 표준 번역안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어.

공공 기관이 요청하는 공공 용어 번역안도 감수해 주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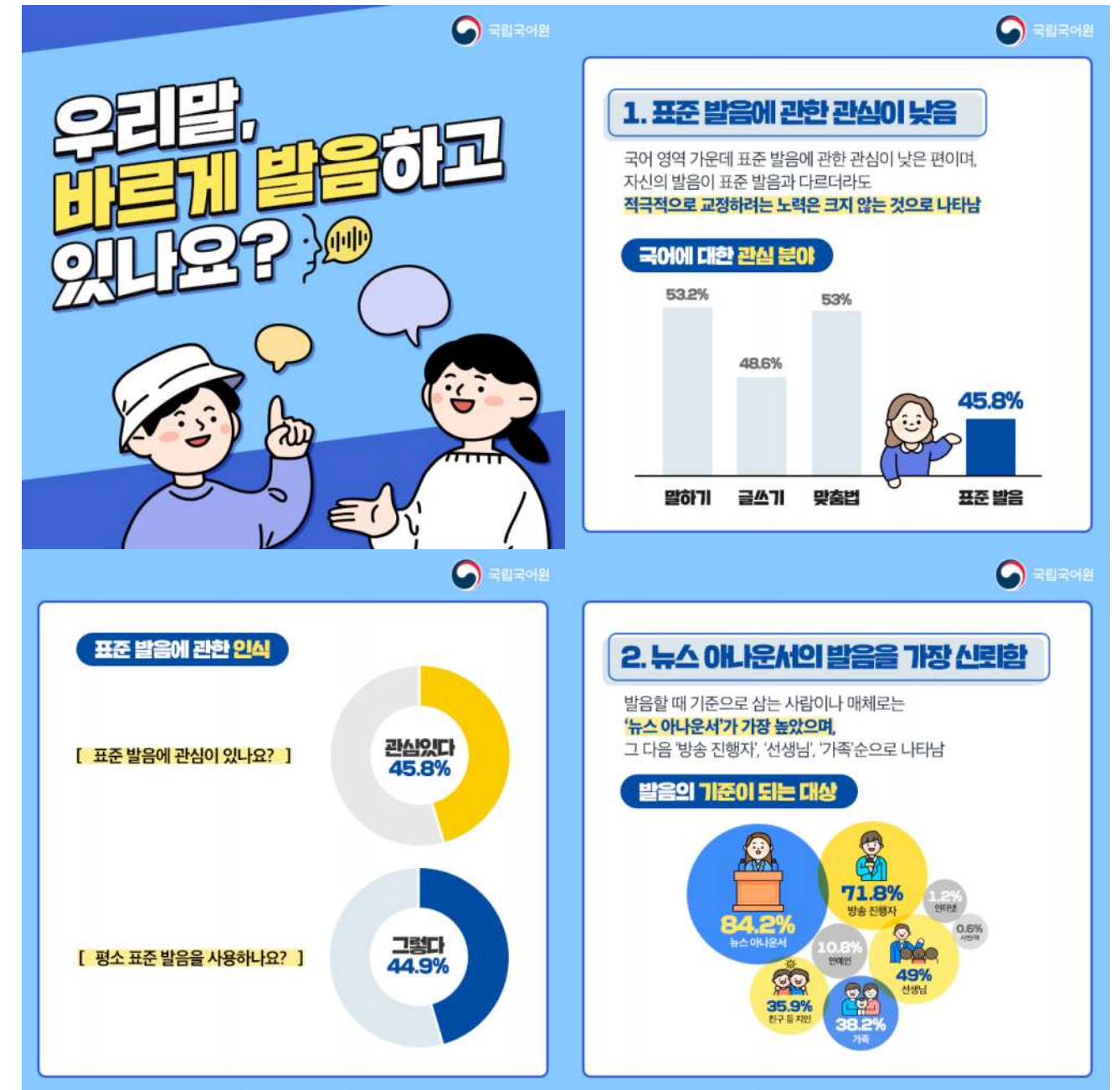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이 궁금하면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면 돼.

우리말, 바르게 발음하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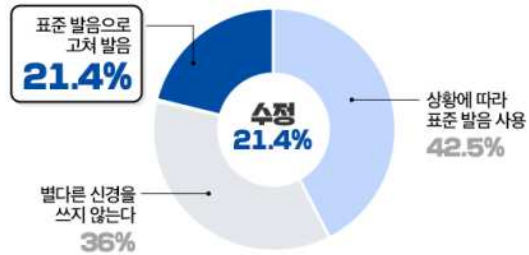
‘들의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이다.’ 한 번쯤은 이런 말놀리로 즐겁게 놀아 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말을 얼마나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을까요?

‘태릉[태:릉]’을 [태능]으로 발음하거나 ‘해님[해:님]’을 [햇님]으로 발음하는 경우처럼,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인데 제대로 발음하지 않을 때가 있진 않으신가요? 국립국어원에서 2016년 발표한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표준 발음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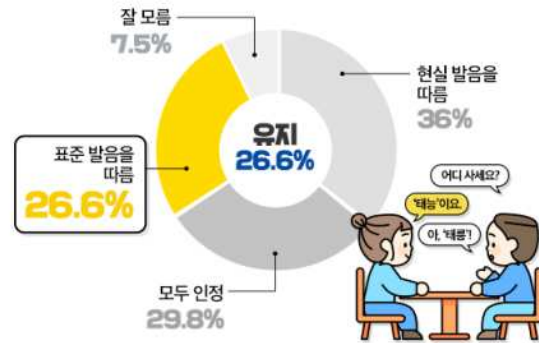
3. 발음과 관련된 행동

자신의 발음이 표준 발음과 다를 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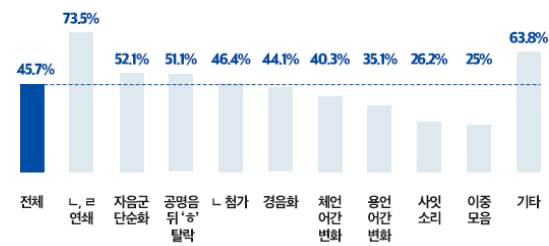
3. 발음과 관련된 행동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이 다를 경우



4. 표준 발음 일치율이 가장 높은 항목

표준 발음 일치율



5. 표준 발음이 궁금하다면?

①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에서
'어문 규정 보기' 선택 → '표준어 규정'에서 '표준 발음법' 선택

표준 발음 보기



5. 표준 발음이 궁금하다면?

②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에서
발음이 궁금한 단어를 검색해서 '발음' 확인!

표준 발음 듣기



어려운 외래어,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직군의 외래어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전문직군의 외래어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라키비움’이나 ‘클린로드’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전문직 종사자들도 잘 모르는 어려운 외래어,

좀 더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말 지키는 국어교육 전문가 서울 양진초등학교 류덕엽 교장 선생님



글: 강은진 / 사진: 김영길

서울 양진초등학교 류덕엽 교장은 교직 생활 30여 년 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등을 집필한 국어교육 전문가이다. 3년 전부터는 한 일간지에 ‘예쁜 말 바른 말’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하다 올해 그 글을 모은 책 『똑소리 나는 우리말 실력』을 펴냈다. 우리말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그를 만나 우리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선생님 마음으로 펴낸 우리말 책

《선표, 마침표.》

먼저 『똑소리 나는 우리말 실력』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출간되자마자 매진이 되는 등 반응이 무척 좋다고 들었습니다. 책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류덕엽

출근 매진이라면 참 좋을 텐데요. (웃음) 출간 초기 주문이 폭주하며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바른말 관련 글을 일간지에 기고하고 있는데요. 틀리기 쉬운 우리말 표현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이경화 교수께서 그 글을 눈여겨보시다가 제게 출판해 보라는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똑소리 나는 우리말 실력』이지요. 미래엔 출판사에서 한국 초등국어교육연구소 연구총서 18권으로 출판했는데요. 대학교재나 전문서적으로 분류되어 있어 서점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더라고요.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가에 비치되어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읽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큼니다. 제 책은 우리말을 하는 모두가 읽어야 할 교양 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선표, 마침표.》

2017년 9월부터 3년 넘게 연재를 이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연재 시기가 긴 만큼 그와 관련해 여러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을까요?

류덕엽

한번은 예문에 “이웃집 할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라고 썼는데, 나중에 신문에 실린 것을 보니 ‘뇌졸중’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그래서 담당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를 제기했더니 “‘뇌졸중’이 맞지 않나요?”하고 되묻는 거예요. 검색을 다시 해본 후에야 제가 지금껏 ‘뇌졸중’을 ‘뇌졸증’으로 잘못 알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웃음) 언어란 평생 익혀야 한다는 걸 새삼 느낀 순간이었지요.



▲양진초등학교 도서관에서 『독소리 나는 우리말 실력』 책을 소개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류덕엽 교장 선생님. 코로나 19로 휴교한 동안 새롭게 단장한 도서관을 어서 아이들에게 보여 주고 싶으며 환하게 웃었다.

《심표, 마침표.》

초등학교 선생님과 우리말 지킴이는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릅니다. 기고 등으로 바른 국어생활을 위해 힘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류덕엽

평소에도 인터넷 기사는 물론 신문 기사나 방송 자막, 심지어 잡지나 일반 서적에서도 오타자, 비문을 발견하면 수정을 요청할 만큼 바른 국어 사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웃음) 많은 분이 저를 ‘우리말 지킴이’로 불러주시고, 또 왜 이런 활동들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 보다는 교직 생활을 하며 국어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연구, 집필, 심의하다 보니 우리말과 글에 대한 애정과 민감성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자로서 바른 교육을 실천해야겠다는 사명감 혹은 틀린 것을 바로잡아주고 싶은 선생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거 같습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말 때문에 아이들과 소통하기 어려움

《심표, 마침표.》

교직 생활을 오래 해 오셨습니다. 아이들의 언어 습관도 예전과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류덕엽

제가 1985년부터 지금까지 36년 정도 초등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언어 습관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대적 특성보다는 학교 여건이나 학부모의 교육적 관심, 학교의 중점 교육 등에 더 영향을 받지요. 다만 상황에 따른 아이들의 언어 표현을 보자면 과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심표, 마침표.》

선생님 입장에서 요즘 가장 우려되는 아이들의 언어 문제는 무엇인가요?

류덕엽

학교에서는 국어 교과를 통해 바른 말을 사용하도록 지속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방송 등에서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축약어나 신조어, 눈살이 찌푸려지는 비속어들을 워낙 남용하다 보니 아이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 ‘핵노잼(재미없다는 뜻의 은어)’이나 ‘고답(고구마 먹은 듯 답답하다는 뜻)’ 같은 축약어를 알아듣지 못해 아이들과 원활하게 대화할 수 없어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모르는 단어로 아이들이 신나게 떠드니,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야 겨우 대화가 가능하죠. 말은 의사소통의 도구인데 오히려 말 때문에 소통이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도 고학년 담임으로는 가급적 50대 미만의 교사를 배정하려 한답니다.





외국인 대상 한국어 선생님 꿈꿔



▲국립국어원에서 취득한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류덕엽 교장 선생님.
퇴임 후, 한국어 교사로 봉사하겠다는 꿈도 꾸고 있다.

《심표, 마침표.》

안으로는 국어 교육 전문가로, 밖으로는 우리말 지킴이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류덕엽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데 지금처럼 꾸준히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하고 평생교육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3년 전부터 공부를 시작해 지난 5월에는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했죠. 이 자격증을 활용해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봉사하는 것이 꿈입니다.

《심표, 마침표.》

마지막으로 틀리기 쉬운 우리말 표현을 하나 알려주세요.

류덕엽

국립국어원 인터뷰에서 이렇게 우리말 표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꼭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다르다’라고 말해야 할 상황에서 ‘틀리다’라고 잘못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타인이 나와 다름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 벌어지는 현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분명히 다르죠. 다르면 존중하는 배려가 필요하고, 틀리면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표, 마침표.》

학년의 특징에 따라 담임 교사가 달라지기도 하는군요. 그렇다면 중고등학교에서의 국어교육과 다른 초등 국어교육만의 특징도 있을까요?

류덕엽

국어교육의 본질적 가치는 학생들이 우리말을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이끄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국어 학습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역량, 자료와 정보를 사용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기르죠. 이러한 본질적 가치나 목표는 초·중등을 망라해 국어과 교과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초등 국어교육도 이 같은 가치를 구현하도록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말과 글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죠. 주로 저학년에서나 하는 받아쓰기를 중학년 학생들에게도 하며 한글의 기본을 바로잡는 교사도 있고요. 다른 교과 수업 중에도 틀린 어휘나 표현을 바로잡아주며 정확하고 바른 우리말 사용을 강조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심표, 마침표.》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해 학교 밖의 어른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류덕엽

말은 상호작용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수업에서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 아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부모 역시 바른말과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서 아이들이 본받게 해야 하죠. 또한, 늘 관심을 두고 아이들의 언어 사용을 지켜봐야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발견되는 무분별한 언어 파괴 현상이나 욕설, 유투버들이 사용하는 저급한 표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단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듬뿍 받는 방탄소년단이 아름다운 우리말이 가득 담긴 노래를 많이 불러주면 좋겠네요.



▲류덕엽 교장 선생님이 지금까지 집필에 참여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오래된 국어 수업자료

574돌 한글날 맞이 삼행시 짓기



우리말 달인을 찾아라!

아래 시제 중 하나를 선택해 삼행시를 지어 주세요.
삼행시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지어 주신 분들을 골라
20분께는 온누리 상품권(50,000원)을, 50분께는 치킨 교환권을 드립니다.
※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130분께는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1. “삼행시 짓기에 참여하기” 를 눌러 주세요.
2. ‘주시경, 한글날, 우리말, 한국어’ 중 하나의 시제를 골라 삼행시를 지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응모기간

2020. 10. 6.~2020. 10. 16.

·선물



·당첨자 발표

10월 30일(금), 《심표, 마침표.》누리집 [‘기획 행사’](#) 게시판에 공고함.

삼행시 짓기 당첨자 발표



574돌 한글날 맞이 삼행시 짓기 당첨자 발표

574돌 한글날 맞이 삼행시 짓기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11월 13일(금)까지
우편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상품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립국어원과 《침표, 마침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74돌

한글날 맞이
삼행시 짓기
당첨자 발표

장원

온누리 상품권

관*아(3129) 김*희(8064) 김*영(3358) 김*현(3375) 김*른(9562)
김*원(4437) 동*일(8810) 문*용(0727) 박*정(0720) 서*명(7456)
신*소(9758) 유*윤(2367) 이*영(9137) 이*숙(2413) 이*경(6742)
임*희(6268) 지*영(4556) 차*라(5824) 최*근(8077) 하*은(1643)

금상

치킨 교환권

김*준(3904) 김*가(2157) 권*현(8301) 김*석(7280) 김*연(7041)
김*영(6533) 김*향(6778) 김*희(8192) 김*진(1474) 김*경(5853)
김*숙(1206) 김*호(7404) 김*상(9660) 김*영(2194) 김*경(0703)
김*진(3486) 문*현(4687) 박*현(7023) 박*숙(3446) 방*화(9592)
송*웅(5530) 송*은(0906) 송*하(1334) 안*진(6089) 오*나(7252)
우*호(8508) 은*경(0569) 이*정(8614) 이*나(0093) 이*래(9949)
이*연(8615) 이*린(0424) 이*권(7101) 이*하(9989) 이*호(6214)
장*미(5550) 정*지(3716) 정*진(2082) 정*진(9108) 정*기(2624)
조*윤(8161) 조*진(6080) 조*성(5848) 주*선(6706) 최*자(0723)
최*미(8308) 최*안(5558) 최*나(1184) 한*호(1470) 허*희(7528)

은상

커피 교환권

강*연(7491) 강*진(7948) 강*규(7497) 강 * (4318) 고*진(2780)
김*선(1626) 김*석(1205) 김*희(6797) 김*희(0366) 김*진(0189)
김*림(9318) 김*비(1640) 김*린(8546) 김*영(0452) 김*나(6947)
김*정(8788) 김*수(1924) 김*숙(3596) 김*균(0585) 김*빈(9524)
김*연(0502) 김*영(4471) 김*원(4122) 나 * (8133) 남*은(9843)
남*현(4908) 박*서(9936) 박*우(4252) 박*윤(7224) 박*나(3509)
박*연(6153) 박*주(3090) 박*선(8240) 박*나(0658) 박*희(6399)
박*현(9655) 박*중(5979) 배*희(6832) 배*희(6832) 백*선(2414)
백*우(8876) 백*진(7527) 변*훈(9877) 서*우(7949) 성*현(5993)
손*연(8264) 송*우(6220) 신*지(4028) 신*진(0697) 신*지(9456)
심*은(5647) 심*화(0929) 안*진(1347) 양*미(0354) 양*균(2087)
양*아(0121) 양*영(3054) 양*지(4237) 엄*진(3007) 엄*해(8875)
오*빈(6460) 오*샘(9565) 오*현(1721) 오*균(9529) 유*희(0081)
유*영(3800) 유*윤(4991) 유*하(7485) 유*아(6739) 유*희(3767)
유*식(9134) 유*철(1664) 육*민(0026) 윤*수(5451) 윤*천(5633)
윤*빈(6161) 윤*영(9321) 윤*민(2764) 윤*철(0622) 이*숨(3793)
이*우(1778) 이*우(2128) 이*영(6461) 이 * (6861) 이*현(7768)
이*정(9350) 이*주(1938) 이*나(0062) 이*성(5761) 이*구(5279)
이*윤(7516) 이*호(1445) 이*만(2867) 이*민(4412) 이*원(9816)
이*륜(2426) 이*주(7010) 이*경(2100) 이*빈(2399) 임*미(2103)
임*지(7191) 임*진(0534) 전*라(7133) 정*수(3134) 정*호(9956)
정*하(8577) 정*원(0852) 정*자(9048) 조*숙(4982) 조*배(1164)
지*훈(0104) 진*이(7294) 차*록(1097) 최*경(8432) 최*석(8588)
최*주(2189) 최*숙(1380) 최*화(0242) 최*훈(8014) 하*주(9085)
한*진(1986) 한*미(9329) 한*영(2533) 한*현(1004) 허*진(5335)
허*주(1918) 허*현(6197) 현*주(5589) 홍*석(5200) 홍*람(0691)

우리말 풀기



자고 나면 하루하루 달라지는 단풍을 볼 때마다 가을이 깊어짐을 느낍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에라도 나가 가을을 만끽해 보는 건 어떠세요?
포근한 햇살 아래서 《심표, 마침표.》를 읽고, ‘우리말 풀기’에 도전해 따뜻한 음료도 즐겨 보세요.

문제 1

사동사에 의한 사동을 어휘에 의한 것이라 하여 어휘적 사동,
‘-게 하다’에 의한 사동을 통사적 구성에 의한 것이라 하여
‘□□□□’이라고 한다.

단서 쉽게 읽는 문법 용어

문제 2

‘큰’, ‘작은’이 형용사로서 크기나 범위 등을 뜻하는
‘□□□’로 쓰일 때는 띄어 쓰고,
명사에 붙어 함성어로 굳어진 경우에는 붙여 써요.

단서 실전 띄어쓰기

문제 3

국립국어원은 공공 용어의 외국어 표준 번역안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어,
공공 기관이 요청하는 공공 용어 번역안도 감수해 주고 있어.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이 궁금하면
‘□□□□□□□□□□’을 이용하면 돼

단서 국어원 소식

문제 4

평소에도 인터넷 기사는 물론 신문 기사나 방송 자막,
심지어 잡지나 일반 서적에서도 오타자, 비문을 발견하면
수정을 요청할 만큼 바른 국어 사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이 저를 ‘□□□ □□□’로
불러주시고, 또 왜 이런 활동들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단서 우리말, 그리고 사람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 참여하기” 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응모기간

2020. 10. 20.~2020. 11. 3.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심표, 마침표.>> 11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는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0년 9월 호 우리말 달인 당첨자

유*철(3689) 남*정(4415) 김*라(3029) 문*진(9563) 최*경(9564)
여*옥(5639) 김*옥(7500) 문*광(5639) 김*라(3029) 박*신(6401)